

늦깎이 졸업생들의 후배 향한 무한 사랑

전북대 생명자원융합학과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전북대 생명자원융합학과만의 전통을 만들고 이어나가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북대학교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늦은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특별한 학생들’로만 구성돼 있는 이채로운 학과가 있다. 만학도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이 다니는 ‘생명자원융합학과’다.

2013년 만들어져 올해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과의 올해 졸업생들이 22일 학위수여식이 끝난 후 이남호 총장을 찾아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남호 총장 역시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발전기금은 지난해 1회 졸업생들이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발전기금을 조성한 이후 이러한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엄창기 학생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졸업 동기생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은 것이다.

학과 특성화 야간과 주말에 수업이 진행되고, 현장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외에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많았다고, 때문에 2기 졸업생들은 자신들이 몸소 겪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후배들이 조금이나마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금을 모으게 된 것이다.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융합학과 졸업생들이 22일 학위수여식이 끝난 후 이남호 총장을 찾아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에 따라 이 기금은 전액 생명자원융합학과에 지정 기탁돼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이 소중하게 쓰일 계획이다.

엄창기 학생회장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늦은 배움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지만 대학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들의 열정이 있었

기에 오늘의 달콤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 같다”며 “역사가 길지 않은 학과지만 선배들이 적극 나서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움의 열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통으로 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근기자



원광대 뷰티디자인학부 고경숙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자연과학대학 뷰티디자인학부 고경숙 교수가 협장실습 우공자로 교육부장관 표장을 받았다.

LINC+사업단 산학교류본부장과 협장실습센터장을 맡고 있는 고경숙 교수는 전공 및 산학협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협장실습에 기여하고, 한국미용학회 이사 활동을 통한 협장실습 제도 개편 및 산학교육 성과 창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천연물을 활용한 헤어트리트먼트 캡스톤디자인 지도와 함께 협제 선두기업인 (주)리치드 프로헤어와 채용 연계형 협장실습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고경숙 교수는 “이번 수상을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참스승이 되라는 뜻으로 여기고 더욱 열심히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읍서, 현장대응력 향상 전자총격기 이론·실제사격 교육

정읍경찰서는 22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신임경찰 및 전입한 지역경찰 3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총격기 사용에 대한 이론과 실제사격 교육을 실시했다.

전자총격기 사용시 오남용시례와 적합한 사용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론교육과 실제사격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에 참가한 직원은 “전자총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테이저건을 직접 발사훈련을 해봄으로써 현장 경찰관에게 유익한 교육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도연 서장은 “전자총격기 사용요건과 사용법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 시에는 인권침해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읍=김대환기자

무진장소방서, 외국인근로자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최근 장수군 강계면 안셀로리아를 방문하여 직원 및 외국인근로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험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그 밖에도 119신고를 할 수 있는 119대매체신고서비스 홍보도 병행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애니메이션 시청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119대매체 신고서비스 ▲연기소화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소방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정수=고판호 기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독거노인 반찬 나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새마을협의회에서 21일 열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 5가구를 방문해 도시락 반찬을 배달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요일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운 홀로 어르신들께 균형 잡힌 반찬을 준비해 배달하고 있으며 지난 설 명절에는 고기세트를 드리는 등 어르신들의 영양과 건강까지 챙겨드렸다.

황승일 새마을협의회 회장은 “어르신들의 영양 증진이라는 목표와 함께 홀로 사시는 분들의 안부도 함께 살펴 수 있고 식사를 하시는 순간은 집밥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메뉴 계발을 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협의회의 이웃사랑 나눔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미용봉사, 어르신 종식 봉사, 취약 지역 환경 정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채규남기자

임실경찰서, 전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22일부터 2일간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은 하성에 김제 성폭력 상담소장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 등과 관련 성인지 능력 향상과 성관련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23일에는 김정수 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이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성백준 완주군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의 ‘생명사랑 지킴이’라는 주제로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광호 경찰서장은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과 더불어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밟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충영기자



부안경찰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가져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자살예방과 성희롱 예방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이를 통한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강사를 초청하여 자살예방을 주제로 하는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김제시 성폭력상담소 강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능범죄수사팀장의 ‘개정 공직선 거법 및 주요위반 사례’로 실시됐다.

부안서는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은 최근 불거진 ‘미투 운동’과 관련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강사의 설명이 있는 사례를 통해 쉽게 배우며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부안경찰은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공감·소통 문화’가 있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탈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